

# 우리시대 역이기를 위하여



김준형의  
청명광니

중국의 진나라 말기, 진류현에는 나이가 60이 넘는 역이기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책읽기를 좋아했고, 뛰어난 능력과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류현의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집안이 가난했던 역이기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했다. 성문을 드나드는 소위 '영웅'이란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자신이 의탁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유방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역이기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유방을 만날 수 있었다. 유방을 만났을 때, 유방은 의자에 앉아 시녀에게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하고 있었다. 역이기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봉기를 하였다'는 자가, 연장자를 이런 태도로 맞이하는가?라며 호통을 쳤다. 유방은 역이기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고, 그를 상석에 앉혔다. 이후 역이기는 유방을 도와 진나라와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역이기는 나이 60이 될 때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유방을 만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긴 역사 속에서, 넘칠 만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능력을 썩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능력자들은 얼마나 많을까? 최근 흑백요리사라는 예능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다. 스타 셰프인 '흑수저'들에게 재야의 고수 '흑수저'들이 도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흑수저들 중에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시던 '급식대장', 중식당의 배달원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식당을 차린 '철가방', 만화책을 보고 요리를 배웠다는 '만찐남'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모두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었다. 비록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아니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틈틈이 요리를 연구하셨지만, 그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다. 최고의 셰프 앞에서 흑수저 요리사들은 당당했다. 가끔씩 흑수저 요리사가 승리할 때, 시청자들은 박수를 쳤다.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

는 희망을 보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가슴이 뻥 뚫리게 만드는 카타르시스였다. 이 흑수저 요리사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시대의 '역이기'인 것이다. 물론 맛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다. 그래서 올림픽의 육상경기처럼 완전히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출연한 요리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량을 발휘했다. 경쟁이란 것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경쟁에서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 백수저 요리사이든, 흑수저 요리사이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철학을 요리에 담아내려는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웠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일 것이다. 경쟁의 기회, 공정한 심사,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주신 여러 요리사님들께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모든 분야의 '역이기'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 48년생 불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물이 필요 한 것. 60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 법. 72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으니 지인의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삶에는 스스로 궁구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 소** 37년생 고집을 부리면 일하고도 고만단 소리 못 듣는다. 4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으면 좋겠다. 61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서 일 처리할 때. 73년생 이상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85년생 언제나 마음은 고향에.
- 호랑이** 38년생 행운이 바로 앞에 있다. 50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밧 갈이라 봐 주는 사람이 없다. 62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후회가 많았다. 74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곧 인정받으니 마음을 차분하게 하자. 86년생 가족을 챙겨야 화목하다.
- 토끼** 3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51년생 주변에서 뜻밖의 행운이 있다. 63년생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75년생 일반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상대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욕심은 그만. 87년생 좋은 일이 많은 날.
- 용** 4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52년생 산뜻한 출발이 있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 64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76년생 마음먹은 대로 밀고 진행된다. 88년생 타처럼 말고 시간과 열정을 갖고 기술에 투자.
- 뱀** 41년생 어제는 내 사람 오늘은 모르는 타인이 사람이던가. 53년생 직장의 변동 수가 있으니 마음에 신념을 갖자. 65년생 차과 진료가 있을 수. 77년생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우선 시작해보자. 89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서라도 달래야 해.
- 말** 42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5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 66년생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약속의 예의가 중요하다. 78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할 시기. 90년생 자녀와 불화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
- 양** 43년생 내가 싫어한다고 남들도 다 싫어하지는 않는다. 55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 67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79년생 종일 우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답답하다. 91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 원숭이** 44년생 지금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날. 56년생 조직의 뜻에 따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68년생 오늘은 무슨 일든 시작. 80년생 운명적인 인연이라 해도 시간을 가져야. 9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상태.
- 닭** 45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7년생 이혼이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오늘 깨닫는다. 69년생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니 안부 전화를. 81년생 자신이 같길 아닌 곳에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하지 말자. 93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 개** 46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58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대인관계에서 적이 없을 듯. 70년생 새로운 이성의 유혹이 있으니 중심을 잡자. 82년생 어शल론 지식체가 무지함보다 못할 수 있으니 공부. 94년생 뒷산으로 가벼운 등산을 해보자.
- 돼지** 4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59년생 마른손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해결. 71년생 지시 없는 투자는 불리하니 다음에. 83년생 몸 건강도 챙겨야지만 바쁘게 지나자. 95년생 타인의 고통을 자신만의 잣대로 경중을 가리지 말자.

# 망사용료, 국내기업은 죽어나고 빅테크는 무임승차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사용료 미지급에 대해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망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터,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터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사용료를 꼽았기 때문. 반면 이달 열린 국감에서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 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튜브를 보유했던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서 구글과 애플 등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서 망 무

임승차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내는 구체적인 디지털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적극적이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애플 등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 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지만, 그마저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말이 곧 마음

시대는 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백정의 이름을 몰랐기에 아이 때부터 불리오던 막둥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고기를 사러 온 한 사람이 "어이 막둥아, 고기 한 근 다오" 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고기를 사러 온 어떤 사람은 "김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라고 말했다. 어찌 됐을까. 두 사람은 똑같이 한 근의 고기를 샀지만 들고 간 양은 서로 달랐다. 김서방이라고 부른 사람이 막둥이라고 부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빚정을 사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짧은 그 세 치 혀로 인해 화를 자초하기도 하고 칼보다도 모질게 남을 아프게도 한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엄두설한처럼 굳어버린 마음에 희망과 햇살이 되기도 한다. 혀의 힘이자 말의 힘인 것이다.

필자는 요즘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상담 때에도 나름의 성의를 담고 있다. 코로나 이후 물가는 고공행진이며 높아진 금리는 서민들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든다. 팍팍해진 시대임을 알기에 예전보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여 함께 길을 찾아보는 심정이 되는 것이다. 사주 명조를 감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定性的) 마인드로 다가가야 한다. 물론 마음이 담긴 정성(精誠)도 함께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상담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예전에 그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려워진 시대에 필자의 마음이 더 단절해진다고나 할까? 모쪼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내 마음이다. 삼재 구설에서도 보듯이 옛사람은 '입의 화' 즉 구설(口舌)을 몹시도 두려워했다. 현대라고 해서 다를까? 말 한마디의 위력을 가볍게 보시지 않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6
9						5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8	9	1	8	6
1	9	8	6	2	7	8	9
6	2	8	9	1	8	7	9
8	6	2	7	8	1	9	9
9	8	9	2	8	6	2	1
2	2	9	9	6	8	8	8
9	7	1	8	9	2	1	6
2	2	9	9	6	8	8	1
8	8	6	1	2	2	9	2
8	8	6	1	2	2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